

# “40년 제사지냈는데 제삿날 오빠 만난다니..”

## 북 오빠 이산상봉 신청에 설레는 영암 이막레 할머니

이막레(77) 할머니의 집에 걸린 달력의 9월19일자 칸에는 ‘소식’이라는 두 글자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다. 이 할머니는 그날 조카에게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막내 오라버니가 북한에 살아 있다’라는 거짓말 같은 소식을 들었다.

은 가족이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온 막내 오빠의 ‘생존 소식’을 꼬박 65년 만에 듣는 순간이었다. 이 할머니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그 두 자를 달력에 그리다시피 썼다.

지난 17일 영암군 신북면 자택에서 만난 이 할머니는 “사망신고도 하고, 40년 가까이 제사를 모셔온 오라버니가 북한에서 가족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며 “오라버니의 제사가 21일 중구(重九·음력 9월9일)인데, 올해는 제삿날에 그분을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6남매 중 여섯째인 이 할머니는 20~22일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1회차 상봉에서 막내 오빠인 리(이)병학(82)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이 할머니는 19일 아들 김한용(58)씨, 막내 오빠의 제사를 모셔온 둘째 오빠의 아들 이수영(55)씨 등 모두 5명과 함께 속초로 올라간다.

경찰서에서 보내온 주름지고 아연 모습의 오빠 사진은 이 할머니가 보았던 사진과는 크게 달랐다. 유익하게 간직 해온 오빠의 중학생 무렵 사진은 현재는 영정 사진으로 매년 제사상에 오르고 있다. 이 할머니의 오빠는 17살 때인 1950년

### 전쟁 참여했다 소식 끊겨

### 30년전 영혼제 올리기도

### 오빠 만날 생각에 잠 못자

이후 소식이 끊겼다. 영암군 시종면 달지마을이 고향인 할머니는 당시 마을에서 몇몇이 전쟁에 나갔는데, 그 중에 오빠가 포함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 할머니의 가족들은 리 할아버지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편지 한 통 조차 받을 수 없었다. 죽었다면 시신이라도, 아니 어디서 어떻게 눈을 감았는지 만이라도 확인했으면 좋으려만 그마저도 알 수 없었다. 결국 가족들은 막내 아들이 전쟁 중에 사망한 줄로만 알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30여년 전에는 영혼제를 올리기도 했다. 현재 리 할아버지의 묘는 영암군 시종면 선산의 부모님 산소 옆에 있다. 아들을 가슴에 묻었던 부모님은 오래전에, 큰 오빠와 작은 오빠, 그리고 언니들도 벌써 10~2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이 할머니는 언니, 오빠들이 하늘에서 막내 오빠를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리병학씨



이산가족 상봉을 앞둔 이막레 할머니가 아들 김한용씨와 막내 오빠에게 선물할 사진을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이 할머니는 “오빠가 국민학생 때 반남 국민학교(현 반남초)에서 열린 운동회를 따라갔는데, 달음박질을 잘하던 모습이 기억난다”며 “다른 오빠들보다도 운동과 공부를 잘하던 분이셨다”고 회상했다.

이 할머니는 ‘오빠를 만나게 된다’라는 말에 2~3주 전부터 사흘 동안 숙곳과 수건, 가족들의 사진을 보자기에 공공 씨뒀다. 사진 뒷면에는 일일이 가족들의 이름

을 썼다. 최근에는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제도 한 대 맞았다. 또 오빠에게 건네줄 속옷, 양말, 내복, 칫솔, 치약, 돈 등을 한아름 싸들고 속초로 올라갈 예정이다.

이 할머니는 “오라버니는 저를 어릴적 이름인 ‘공레’로 기억하고 계신다”며 “최근 한달간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오빠가) 귀는 안 잡수셨는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1 해질 17:53  
달출 11:55 달짐 22:36

### 푸른 가을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12/26	보성	맑음	8/24
목포	맑음	14/24	순천	맑음	12/26
여수	맑음	16/23	영광	맑음	10/25
나주	맑음	9/26	진도	맑음	12/25
완도	맑음	14/24	전주	구름많음	12/25
구례	맑음	8/26	군산	구름많음	12/23
강진	맑음	10/26	남원	맑음	8/26
해남	맑음	9/25	축산도	맑음	17/21
장성	맑음	9/25			

### 바다 날씨

		오전	파고(m)	오후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남부	면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서부	면바다(동)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면바다(서)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5:34	10:42
		18:14	23:24
여수		00:00	05:56
		12:37	18:53

### 주간 날씨

20(화)	21(수)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	☀	☀	☀	☀	☀	☀
13/26	13/25	12/25	11/24	12/23	12/22	11/21

생활지수

- 주의: 식중독
- 보통: 운동
- 낮음: 산물

## 사흘간 6차례 걸쳐 12시간 가족 만나

## 북측 신청자 중 광주·전남 출신은 5명

### 이산 상봉 행사 어떻게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20일 금강산에서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나게 된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20~26일 금강산 일원에서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린다.

1회차에서는 북측 이산가족 96가족이 20~22일 남측 가족 394명을 상봉한다. 북측 이산가족 신청자 중 광주·전남 출신은 리병학(82·영암)·정규현(88·무안)·신귀중(85·담양)·선동기(81·광주 광산구)·권금육(여·81·곡성)씨 등 5명이다.

남측 가족들은 사흘간 6차례 12시간 동안 북측 이산가족들과 상봉한다.

남측 가족들과 북측 이산가족들은 첫 날인 20일 오후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단체 상봉을 하고, 오

후 7시30분부터 환영만찬에 참여한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오전 9시30분~11시30분 금강산호텔에서 개별상봉, 낮 12시30분부터 금강산호텔에서 공동 중식상봉, 이어 금강산 면회소에서 단체상봉을 하게 된다.

과거 이산가족 상봉 둘째 날의 경우 날씨가 좋고 온화할 때는 해금강 등에서 야외 상봉을 하기도 했다.

마지막 날인 23일은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금강산 면회소에서 작별상봉이 예정돼 있다.

2회차에서는 광주지역 3가족을 포함해 남측 이산가족 90가족이 24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일원에서 북측 가족 188명을 만난다. 상봉 시간은 동일하지만 장소는 다소 차이가 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일정

남북은 10월20일부터 26일까지 1, 2회차에 걸쳐 금강산 일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는다.

기간 10월20일(화)~26일(일), 금강산	
- 1회차 (10.20~22, 남측 주관): 북측 방문단(96가족)이 남측 가족 상봉	
- 2회차 (10.24~26, 북측 주관): 남측 방문단(90가족)이 북측 가족 상봉	
남측 이산가족 규모	
- 1회차(상봉단): 394명	- 2회차(방문단): 255명
1회차 주요 일정	
- 19일: 방북 교육 (강원 속초 한화리조트)	
- 20일: 단체상봉(북 금강산 면회소, 오후 3시30분~5시30분), 우리측 주최 환영만찬(금강산 면회소, 오후 7시30분~9시30분)	
- 21일: 개별상봉(금강산호텔, 오전 9시30분~11시30분), 공동중식(금강산호텔, 낮12시30분~오후 2시30분), 단체상봉(금강산 면회소, 오후 4시30분~6시30분)	
- 22일: 작별상봉(금강산 면회소, 오전 9시30분~11시30), 귀환	
2회차 주요 일정	
- 23일: 방북 교육 (강원 속초 한화리조트)	
- 24일: 단체상봉(북 금강산호텔, 오후 3시30분~5시30분), 북측 주최 환영만찬(오후 7시30분~9시30분)	
- 25일: 개별상봉(외금강호텔, 오전 9시30분~11시30분), 공동중식(금강산호텔, 낮12시30분~오후 2시30분), 단체상봉(금강산호텔, 오후 4시30분~6시30분)	
- 26일: 작별상봉(금강산호텔, 오전 9시30분~11시30분), 귀환	

자료: 통일부, 지도 제공: 비둘기



## 한빛원전 방사성폐기물 해상운송 시범 운항

### 5호기 발전 재개

한빛원전 방사성 폐기물 해상 운송의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한 ‘폐기물 운송선 시범 운항’이 지난 16일 영광 앞바다에서 진행됐다.

영광군, 영광군의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은 이날 오후 영광군 흥농읍 한빛원전 앞바다에서 폐기물 전용 운반선 ‘청정누리호’에 승선, 3시간에 걸쳐 항로 안정성 등을 점검했다.

‘청정누리호’는 한빛원전 선착장에서 출항, 영광 앞바다 7km 해상까지 폐기물을 선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했으며, 검증단은 운항 중 수심 및 해저 장애물 현황 등을 점검했다.

검증단은 시범 운항 결과와 폐기물 운송을 주관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제출한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살펴본 뒤 조만간 안전성 검증 절차를 마무리할 방

침이다.

원자력환경공단 측은 영광군 의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검증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어민과의 보상 협의를 진행, 올해 안으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1000드럼(1드럼 200ℓ 규모)을 경주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옮긴다는 구상이다. 한빛원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고에는 현재 2만3000여 드럼의 폐기물이 저장돼 98%의 저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계획된 예방정비를 마친 한빛원전 5호기(100만kW급)는 지난 17일 오후 3시52분에 발전을 재개했다.

한빛원전 5호기는 지난 8월 10일부터 60여일 간 원전 연료교체,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체적 검사, 이동형 발전차 실증시험 등을 실시했다. 한빛원전 5호기는 단계적으로 출력을 상승, 20일 정상 출력이 도달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인사청탁 금품 수수혐의

### 검찰, 영광수협 압수수색

검찰이 인사 청탁과 관련해 금품이 오간 혐의로 영광수협을 압수수색했다.

18일 광주지방법검찰청과 영광수협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직원 인사와 관련해

금품이 오간 정황을 잡고 지난 16일 오전 영광수협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직원 2명의 부모가 자녀의 인사관련을 청탁하며 영광수협 K조합장의 지인 S씨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제19회 백양

라프팅 축제

에기단풍과 나누는 가을이야기

2015. 10. 23(금)~ 10. 25(일)

국립공원 백암산·백양사 일원

| 주최 및 주관 | Jangseong 장성군 장성군축제위원회 | 후원 |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